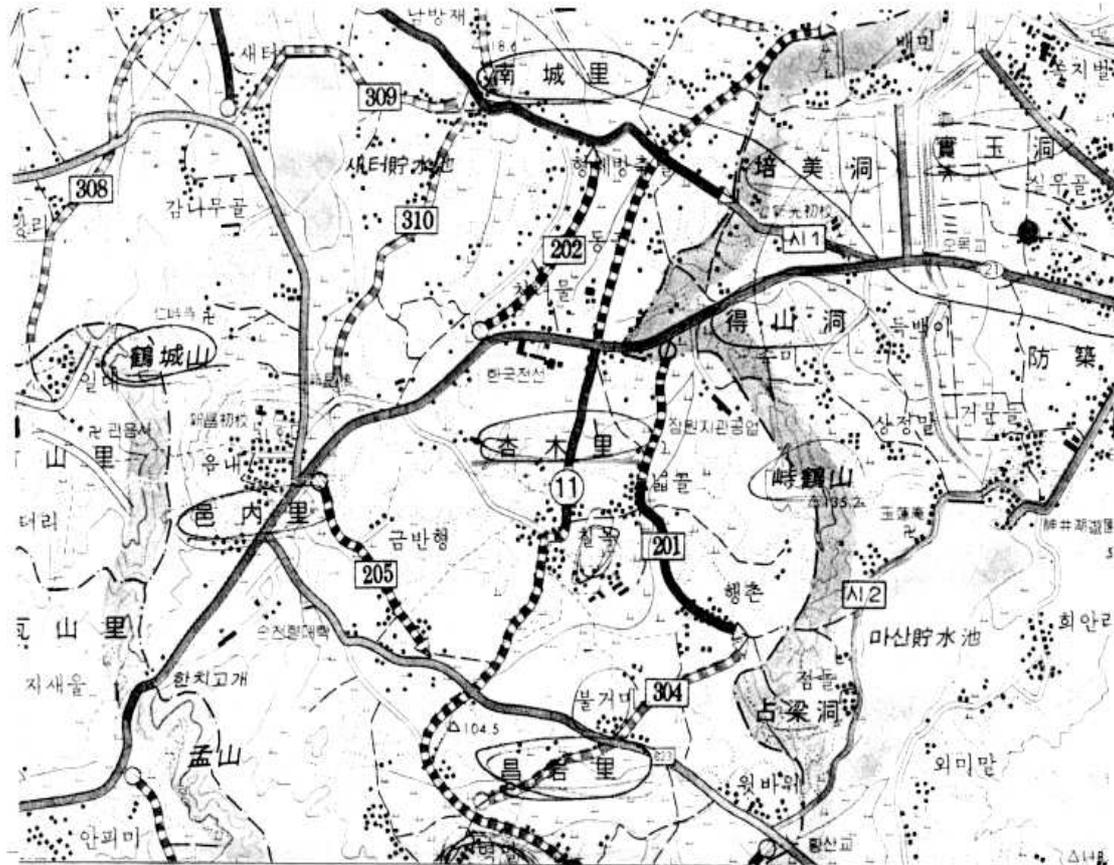


\* 마을사 \*

## 행목리 · 杏木里

신창면의 한 마을로 냇골, 칠목, 마을로 나뉘며, 그 중 행촌과 칠목의 이름을 따서 행목리라고 불리워졌다. 행목리 마을의 총 인구수는 1921명으로 남자 1007명, 여자 914명이 살고 있고, 총 호구수는 608가구에 이른다. 행목리 마을은 신창군 대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칠목리, 행촌, 잉동 일부를 병합하여 행촌과 칠목의 이름을 따서 행목리라 하여 아산군 화성면에 편입되었다.

<행목리 위치도>



### ⊗ 칠목, 냇골 마을 (행목리)

행목1리는 칠목 마을로 이루어 졌으며, 칠목 마을은 칠목은 행목1리의 마을로 7개의 고개가 모였다 하여 칠목이라 하며, 7개의 고개는 냇골 고개, 능골 고개, 장고개, 젓골고개, 다릿골 고개로 되어 있다.

행목2리는 냇골, 행촌마을로 나뉘며, 냇골 마을은 광곡 또는 인골이라고 하며 칠목 동쪽에 있는 골이 넓은 마을이라 지어진 이름이며, 행촌 마을은 칠목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살구 나무가 많이 있었다 한다.

<조사당시 행목리마을 관련 사진>



### 1) 지 명

칠목 마을은 위도 36-46-20, 경도 126-57-20인 마을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도고 가는 도로변을 따라 가면 신창휴게소가 나온다. 이 신창휴게소에서 100m 정도 더 가면 순천향대 후문 도로를 따라 한참만에 신작로 갖길로 한 대의 차가 겨우 들어갈 정도인 논 두렁의 좁은 길을 달려 금반향이라는 곳을 거쳐 지나면, 행목리 1리에 도착할 수 있다.

넙골마을은 위도 36-46-40, 경도 126-57-3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행목리 1리를 지나 맞은편인 행목2리 넙골이란 마을이 나온다.

### 2) 현 황

칠목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878명, 여자 802명으로 총 1680명에 이른다. 호구수는 538호에 이르고 농업이 18%, 기타 82%에 종사하고 있다. 토착 칠목마을 사람들은 83%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마을의 생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넙골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129명, 여자 112명으로 총 241명에 이른다. 호구수는 70호이고, 그 중 농업이 80%, 나머지 20%는 기타직업에 종사한다.

####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칠목마을	1680명	878명	802명
넙골마을	241명	129명	112명

####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기타직종
-----	---	-----	------

마을명			
칠목마을	100%	18%	83%
넙골마을	100%	80%	20%

칠목마을은 논 39ha, 밭 35ha 이며, 논과 밭은 서로 비슷하게 조사 되었고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등 경운기가 유난히 많은 마을이며, 마을회관이 1개소 있고 앰프가 3대가 된다.

넙골 마을은 논 45ha, 밭 38ha이며, 논이 많으며,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1개소 있고 마을문고 1개, 농약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칠목마을	74ha	39ha	35ha
넙골마을	83ha	45ha	38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문화시설	마을문고	기타문화시설
칠목마을	1개소	1개소	-	-
넙골마을	2개소	1개소	1개소	-

칠목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살펴 보면 김씨 26%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며, 최씨 9%, 이씨가 20%로 기타 성씨로 45%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 보면 아파트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으며, 아파트에는 초등학교 160여명이나 된다.

넙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살펴 보면 김씨 21%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며, 최씨 15%, 이씨 14%, 기타 성씨가 59%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50~6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이씨	최씨	김씨	기타성씨
칠목마을	538호	108호	50호	138호	242호
넙골마을	70호	10호	11호	15호	34호

- 최고령자

칠목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분임씨와 이일규씨가 모두 100세이시며, 넙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조 돈원으로 85세이시다.

3) 자연경관

칠목마을은 행목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울타리가 많았다고 하며 지형상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며, 지금은 대주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주 아파트 주위에 작은 야산이 있다.

넙골 마을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변 주위에는 논이 있고, 치악산이 동쪽으로 위치해 있다.

#### 4) 마을 변천 과정

칠목 마을과 넙골 마을은 신창군 대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칠목리, 행촌, 잉동 일부를 병합하여 행촌과 칠목의 이름을 따서 행목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으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 5) 입 향

칠목 마을은 현재 자연 마을의 주민들은 거의 2/3 가량이 5대째에서 7대째가 살고 있고, 현재 7대째가 살고 있는 신창 덕씨로 미루어 보아 마을이 형성된 것은 대략 서기 1800년경 약 200년전으로 추측한다. 일제시대에는 통털어 60가구였고, 해방뒤에 늘기 시작해 지금은 늘지도 줄지도 않은지 20~30년간 꾸준하다고 했다. 전에는 이씨가 많이 분포했으나, 현재는 고루 분포되어 있다.

넙골 마을은 칠목 마을과 비슷하게 마을이 형성된 것은 대략 서기 1800년경 약 200여년 전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김씨, 이씨가 살았으나 지금은 고루 분포하고 있다.

#### 6) 지 명

十 칠목 마을의 지명 유래

·칠목 : 행목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옷나무가 많았음. 조선시대에 정책적으로 옷나무 재배를 장려하였다 함.

十 넙골 마을의 지명 유래

·넙골 (광골, 인골) : 칠목 동쪽에 있는 골이 넓은 마을.

·행촌 : 칠목 남쪽에 있는 마을.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음.

#### 7) 전 설

十 옥녀봉의 유래

행목리 뒤쪽으로 옥녀봉이 있는데 산봉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지어진 이름인데 이 봉우리에 관한 전설이나 설화는 없고 산 모양이 특이하다고 한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칠목 마을 안에는 정자나무가 있는데 예전에는 당집을 지어 놓아서 제를 올리고 마을 잔치처럼 행해졌다.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들어오기고 하고 해방 이후 관리 부족으로 지금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한다.

넙골 마을에는 자랑할 만큼 큰 회화나무가 있는데 (고유번호 8-16-338) 둘레가 약 13m 쯤 되며, 올해로 480년 정도 된 나무로 5년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꼭 제를 올렸다. 그런데 타지에서 이사온 한 남자가 자기가 비손을 하겠다 했다가 즉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론 회화나무에서 제를 올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마을에 우환 끼는 것 같다면 올 가을부터는 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 10) 종교현황

칠목 마을은 기독교로서 행목 감리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87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절은 없다

넙골 마을은 행목성안교회가 있고 신도수가 45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절은 없다.

#### 11) 공장현황

칠목마을은 공중전화카드 제조 회사인 코코마와 코리아 로타리 서비스 회사가 들어와 있고 넙골 마을에는 펄프 생산업체인 동일제지와 철문 제품 제조를 하는 대보산업이 있다.

力 코코마 : 행목 451-42, 허가일 96. 4. 5. 면적 7,613. 종업원수 49명, 공중전화카드 제조 力 (주) 코리아 로타리 서비스 : 행목 산 33-1 즉석복권 바코드 91. 3. 8. 면적 12,643m<sup>2</sup>

종업원수 50명

力 동일제지: 행목 3-3, 허가일 83.9.12, 면적 36,836(휴업중) 펄프제조업  
力 대보산업: 198-3, 허가일 96.5.3., 면적 1,607 종업원수 10. 철문제품제조

### 12) 마을의 특성

칠목마을은 마을에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에 아  
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어 마을의 큰 자랑거리이다. 온양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  
팔 수 있는 채소나 과수 농사를 하고 있다.

넙골 마을은 마을에 큰 회화나무가 있으며, 멀리 치악산이 있으며, 수박, 배추 농사와 과  
수농사를 짓고 있으며, 마을이 정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다.